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사제지연' 행사에 서승환 총장(첫 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재학생, 은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세대 제공

“내 삶의 나침반, 그 이름은 선생님” 연세대, 중고교 은사-제자를 잇다

스승의날 앞두고 '사제지연' 행사
최우수 학생 중고교 은사 대학 초청
스승의 은혜 기억-감사 계기 마련

홍지수 씨(21)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상암중에 입학했을 당시 친구 관계, 진로, 공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졌다. 마땅히 주변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즈음 홍 씨는 이은정 선생님이 담당하는 교내 '관현악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다. 3년 연인의 시작이었다. 중학교 내내 홍 씨는 자신의 고민을 선생님에게 상담했고, 이 씨는 그때마다 따뜻한 조언으로 화답했다. 세월이 흘러 홍 씨는 고교에 진학했고, 2023년 현재 연세대 실내건축학과 2학년 재학 중인 명문대생이 됐다.

지난달 29일,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재회했다. 스승의 날을 앞둔 '사제지연' 행사에서 제자 홍 씨가 은사인 이 씨를 학교로 초청한 것. 홍 씨는 “선생님께서 해주신 조언이 제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몇 년 만에 제자의 얼굴을 다시 본 이 씨는 “진심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왔지만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 한다는 느낌을 받곤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제자를 만나고 보니 나의 진심을 인정받는 것 같아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연세대는 “학생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10대 시절 학업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준 은사를 초청해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사제의 연을 꾸준히 이어 나가길 바라는 취지에서 처음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세대에서 최우수 성적을 기록한 학생 70여 명이 자신들의 중고교 시절 은사를 초청했다. 각 단과대 학장 등을 포함해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다시 만난 은사에게 카네이션 꽃다발을 전달했다. 오찬과 함께 재학생 밴드 '스미 소니언', '아카리카' 응원단 공연, 포토존 플라로이드 기념 촬영 등을 함께 즐겼다. 학생과 은사가 함께 캠퍼스를 돌아보며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눴다. 오재린 씨(국어국문학과 2학년)는 은사인 이아름 경기 정발중 교사가 학창 시절 '길을 잃었을 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선생님을 여기서 뵈니까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다.

곽민서 씨(실내건축학과 2학년)는 고교 1학년 담임 교사였던 문을임 경기 고림고 교사를 초청했다. 곽 씨는 “선생님은 고교 3년간의 추억과 같은 분”이라며 “졸업 이후에는 뵈지 못했는데, 이렇게 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제자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교직 생활의 보람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원 씨(영어영문학과 2학년)의 은사인 엄명경 서울 명덕외고 교사는 “채워가야 고교 시절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 달라고 도와주었던 기억이 난다”며 “연락을 받고 '교사를 했기에 이런 보람을 느끼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다”고 말했다.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제자의 앞날을 응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중호 강원 신철원고 교사는 “제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왔을까 생각해 보니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연세대가 학생들을 틀림없이 비상하는 독수리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오직 그 하나의 사명감으로 기꺼이 어려운 스승의 길을 걸어 오셨다”며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스승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신 덕분에 연세대가 이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연세대는 사제 간의 유대를 잇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101@donga.com

“이과 가려는 문과생, 의대는 사실상 불가” 과학탐구 등 가산점 부여로 ‘칸막이’ 여전

2025학년도 대입전형 분석해보니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수학과 탐구영역에서 필수과목을 지정하지 않는 4년제 대학이 2024학년도보다 17곳 늘었다. 고려대가 7년 만에 논술전형을 다시 도입한 점도 눈길을 끈다.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입의 주요 변화를 고교 현장 교사들과 입시업계의 실명을 종합해 정리했다.

-2025학년도부터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한 곳은 어디인가.

“2024학년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않은 4년제 대학은 총 129곳이다. 2025학년도엔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

필수과목 미지정대 17곳 늘어
교차지원서 문과생 여전히 불리
미적분-기하 이수편 경쟁력 상승
고려대 7년만에 논술전형 재도입
수시 학종서 활동내역 축소-폐지

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캠퍼스) 등 17곳이 늘어 146곳이 됐다.”

-문과생도 의대 진학이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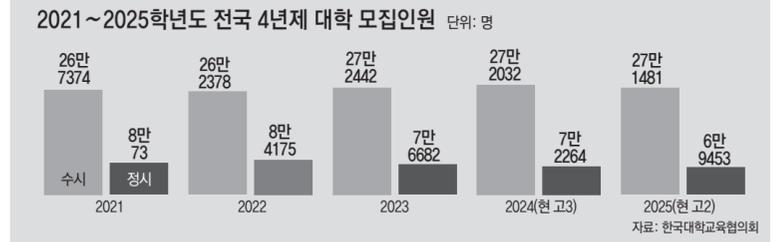
“중로확원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중 10곳이 문과생 지원이 가능하다.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다. 하지만 이과 최상위권 학생이 지원하는 이들 의대에 문과생이 실제 합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입시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문과생이 수학 '확률과 통계'에서 만점을 받아도 '미적분' 만점을 받은 이과생보다 표준점수 만점이 낮다. 지난해 수능에선 두 과목 만점이 각각 144점, 147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에 따르면 올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선 그 차이가 6점으로 더 커졌다.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입시에서 이 정도 점수 차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순천향대는 수학 '미적분, 기하' 응시자에게 10%, 이화여대는 과탐 응시자에게 6% 가산점을 주는 등 10곳 모두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과목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첨단분야 등 이공계 인기 학과 지원은 가능할까.

“의대가 아닌 이공계, 자연계에서 문과생들에게 교차지원 문턱이 낮아진 것은 맞다. 다만 진학 상담 교사들은 실제로 교차지원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것

구분	자연계열 선택과목 지정 여부	가산점
경희대	미지정	인문계 사회탐구 4점(과목당) 자연계 과학탐구 4점(과목당)
고려대	과학탐구	-
서울대	수학 미적분·기하, 과학탐구	자연계 과학탐구 II 가산점
서울시립대	수학 미적분·기하	인문계 사회탐구 2과목 응시 때 3% 가산
성균관대	미지정	자연계 과학탐구 2과목 응시 때 3% 가산 자연계 과학탐구 가산점 부여 예정
연세대	미지정	인문계 사회탐구 3% 가산 자연계 과학탐구 3% 가산
이화여대	미지정	자연계 과학탐구 6% 가산

자료: 각 대학, 종로학원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로 전망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첨단분야 학과는 이과생에게도 인기가 높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문과생이 해당 학과에 가려면 학교 눈높이를 낮춰서 지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차지원에서 문과 학생의 불리함은 해소될까.

“학교마다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봐야 한다. 연세대는 인문계열의 수학 가중치를 2024학년도 33%에서 25%로 낮췄다. 대신 탐구과목은 16.7%에서 25%로, 국어는 33.3%에서 37.5%로 올렸다. 인문계열은 사회탐구에, 자연계열은 과학탐구에 각각 3%의 가산점도 부여했다. 이과생의 문과 교차지원 문턱을 높인 것이다. 반면 서울대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은 문과생이 인문계열에 지원할 때는 가산점이 없지만 이과생이 이공, 자연, 의학계열에 지원할 때 과학탐구에서 가산점을 준다. 이과생의 인문계 교차지원이 유리한 구조다.”

-문과생들이 반길 만한 변화는 없나.

“문과생이 자연계열에 지원할 때 과학탐구를 꼭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이 늘었다. 사회탐구에서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 자연계열 진학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학과 선택에는 신중해야 한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 중에는 과학탐구의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을 이수해 기초학력이 뒷받침돼야 전공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분야가 많다. 대학들은 수학, 과학 기초 지식 없이

입학한 문과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문과생이 자연계열 진학을 희망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

“문과는 '확률과 통계', 이과는 '미적분'이라는 과거 공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문과생도 수학에 자신 있는 상위권 학생이라면 미적분 등에 도전할 만하다. 문과에서 미적분을 이수하면 대학 진학에서 유리하다. 문과는 상경계열 희망 학생이 많은데, 경제학 등을 공부하려면 수학 기초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과생이 주로 보는 미적분, 기하를 공부한 문과생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상경계열 진학에 유리할 수도 있고, 정시에서 자연계열에 지원할 때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학평에서 39.1%였던 미적분 선택 비율은 올 3월 학평에선 43.4%로 올랐다.”

-그 밖에 눈에 띄는 변화는 어떤 게 있나.

“고려대가 2018학년도 이후 7년 만에 수시에서 논술전형을 다시 도입했다. 올해부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평가 시 활동 내역 항목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서류만으로는 학생을 평가하기 어려워지니 우수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 논술전형을 신선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거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들쭉날쭉한 수험생들에게는 노력만 한 전형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